

민주당 손학규 대표 단독 인터뷰

“광주정신으로 민주진보 뭉쳐 정권교체”

민주당 손학규 신임 대표는 6일 “광주는 민주 진보세력의 정신적 고향이고 근원이며, 광주 정신은 민주정신이고 통합정신”이라며 “이 같은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민주진보세력을 하나로 뭉쳐 정권교체를 이룩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당심과 민심은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민주당을 전국 정당, 수권정당으로 탈바꿈시키려는 명령이었던 만큼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손 대표와 일문일답.
-현재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은 민주당을 전국정당, 수권정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신뢰를 넓혀야 한다. 또 영남 등 취약지역에서 민주당의 기반을 넓히는 것은 필수과제다.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취약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대표로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피는 일이 먼저다. 서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친 서민정책 이야기하면서 서민과 농민의 어려움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후퇴된 민주주의를 되살리겠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발전시킨 남북 평화·교류 협력의 길을 가겠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동과 서, 진보와 개혁, 노동과 기업, 수도권과 지방, 세대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능력있는 민주당, 신뢰받는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이 되어야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더 이상 안주하는 민주당, 스스로 만족하는 민주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기득권도 만들지 않고, 그 어떤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만이 진정한 수권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나부터 앞장서서 모든 것을 버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집단지도체제 도입으로 당내 갈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오래려 영랑력·지도력 있는 지도자가 최고회의에 모두 들어와 민주당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486 대표주자인 이인영 최고위원의 진입은 민주당이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 정당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징조라고 본다.

-당내 계파 간 갈등 때문에 당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내 통합에 대한 해법은.

▲정권 교체라는 공통의 목적에 충실하면 당내 경쟁은



가능할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대의원들의 선택이 전당대회 승부를 갈랐다. 광주·전남 대의원들이 손 대표를 지지한 이유는 뭐라고 보나.

▲우선 이번 전당대회에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주신 호남지역 당원과 지역민에 감사한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호남을 중심으로 한 기대는 2012년 정권교체 명령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폭정을 이젠 끝내고 경제를 꽃피우고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변화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능력있고 통합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반드시 정권교체를 실현하겠다. 그것이 광주·전남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일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호남의 현안을 챙기는데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앞으로 호남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경제발전과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은 호남 지역민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여망이다. 경제발전과 서민복지에 특별히 관심을 가질 것이다. 또한, 광주와 전남의 주요 현안사업인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F1대회, 여수 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 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모을 것이다. 또한, 혁신도시도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자리 창출과 많은 기업이 호남으로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지방선거를 통해 공약했던 학교 무상급식, 중앙정부 예산도 확실히 확보하는 데 당이 앞장서겠다.

-10·27 서구청장 재선거가 있다. 민주당에 대항한 비민주당 야 4당 후보와 민주당 공천에 불만을 품은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나선다. 어떻게 치를 것인가.

▲10·27 서구청장 재선거 후보는 당에서 엄정한 심사를 통해 공정한 만큼 최선을 다해 후보를 당선시키도록 할 것이다. 나를 포함한 지도부도 광주를 방목해 선거를 도울 것이다. 특히 공천에 불만을 갖고 탈당한 분들도 최선을 다해 민주당에 품안으로 들어와 힘을 합치도록 화합과 통합의 환경을 만들겠다.

-4대 강 사업에 대해 민주당과 전남도의 입장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영산강 사업은 일반적인 4대 강 사업과 성격이 다른 것이 있다. 정부가 낙동강을 한강으로 잇는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기 이를 변형한 것이 4대 강 사업이다. 따라서 낙동강은 언제든지 운하로 바뀔 수 있어 영산강 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낙동강의 경우 위장된 운하사업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하지만, 영산강은 수질 개선하고 수량을 확보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4대 강 사업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면서 사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산강 사업은 4대 강 사업과 관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사진 가운데)와 박주선·이인영·정동영·정세균·천정배·조배숙 최고위원(사진 왼쪽부터) 등 민주당 지도부는 6일 광주 센트럴호텔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MB 서민 무관심… 민주, 서민특위 구성”

민주당, 광주서 최고위 회의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전당대회 이후 6일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명박 정부를 서민생활에 무관심한 무능한 정부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당내에 서민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손 대표는 이날 광주 센트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서민생활에 대해서 관심도, 대처 능력도 없는 무능한 정부”라며 “서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농작물 감소가 예상되면 대체 농지 마련 및 물량공급 대비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는 결국이 대통령이 서민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서민대책을 적극 마련하기 위해 당내에 서민정책특별위를 구성, 운영할 생각”이라며 “채소 과잉을 계기로 서민생활에 있어 좀 더 실질적 대책과 정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전남 경기도 여주 4대강 공사

현장 방문을 언급하면서 “이포보와 여주보 사이의 농경지 100만평이 4대강 사업으로 파헤쳐져 서울 근교에서 가장 큰 신산업체로 재배치기 한계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줄어드는 채소밭이 2.4%라고 강변하지만 전문가 조사에 의하면 감소량이 16% 이상 된다고 한다. 더 이상 사실을 은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도부에 난기류가 감지됐다. 10·3 전당대회 차명자인 정동영 최고위원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노선 문제를 제기하면서 손 대표에게 “견제구”를 던진 것.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인사말을 통해 “광주정신으로 모든 진보세력이 하나로 뭉치고 그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며 당의 화합을 주문했다.

하지만, 전대에서 득표율 2위로 당권을 손 대표에게 내준 정 최고위원은 “새 지도부는 집단지도체제”라며 “대표 개인의 생각이 당 정체성이 아니라 당헌과 강령, 당원의 요구와 생각이 정체성”이라고 손 대표를 견제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손학규 ‘野 뿌리찾기’ 잇단 행보

광주·봉하 방문 지지층 끌어안기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6일 당의 심장부인 광주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을 잇달아 방문한 것은 정통성 확보와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표 취임과 함께 민주당의 맥을 잇는 상징적 장소를 찾아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정통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라는 것이다.

특히, 지방에서의 첫 최고위원회 개최지를 광주로 잡은 것은 전당대회에서의 전폭적 지지에 대한 보은 차원도 있지만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본류인 광주·전남지역 민심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그는 묘역 참배 후 “광주·전남지역 당원은 민주당에게 2012년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룩하라는 지엄한 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한 뒤 “광주 정신을 받들어 정권교체를 위해 스스로 혁신하고 변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방문목적은 “광주 영령 앞에 2012년 정권교체를 바치겠다”고 썼다.

손 대표는 이어 오후에는 봉하마을로 이동,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 노 전 대통령과 결코려운 관계를 유지했던 손 대표가 묘소 앞에 무릎 꿇고 묘지를 어루만지면서 영전 앞에서 ‘반성문’을 썼다.

그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내가 정치적 입장을 달리했을 때 국가 원수인 노 전 대통령께 인간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결례를 범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봉하 방문을 놓고는 민주당 등 야권의 한 축인 진보 진영 끌어안기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표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광주(062) 서구 352-7788 북구 512-7998 남구 676-7719

전남(061) 목포(삼양) 274-5987 순천 744-8605 목포(건영) 243-7463 여수 654-7755

(주)칠만표방수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

www.dreamkorea.biz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 드림방수의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습윤상태에서도 방수를 할 수 있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옥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방수제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 옥상 • 외벽 • 지하실 • 공장바닥 • 주차장
• 휴진 • 물탱크 • 양어장 • 수영장 • 기와집
• 화장실 타일 •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냄새 나는 집
•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Table with 2 columns: 생 산 취 급 품 목 and DDK product codes and names.

신제품 몰방 부어 사용하는 - 강력접착제등수평바닥재 DK-1000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공에 경험부족 않은 방수전문가가 난방하여 소비자들을 만족시켜 주는 방수하는 방수전문가가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인종 품질보증업체입니다. GORE-TEX 코어텍스공법 특허

드림코리아 DREAM KOREA
광주·전남 대리점
광산구 062)941-3266 북구 062)430-5777 순천 061)746-5556 해남 061)532-9789 서구 062)372-7704 나주 061)333-7789 동구 062)234-6698 목포 061)242-2220